

## 『대학』의 8조목과 팔선녀 관계에 대한 연구

정치균\*

### <차례>

1. 서론
2. 『대학』과 김만중
3. 『대학』의 8조목과 8선녀의 관계
4. 결론

### <국문초록>

본 논문은 『구운몽』에 등장하는 인물들 즉, 성진이자 양소유인 주인공과 그 상대인 팔선녀이자 현생 8부인이 『대학』의 8조목과 어떻게 관계 맺음을 하고 있는가, 또 어떻게 문학적으로 비유·상징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즉, 『구운몽』에서 어떻게 『대학』의 8조목을 8선녀로 치환하여 해석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필자는 양소유와 8선녀가 인연을 맺는 일련의 과정을 『대학』의 8조목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를 통해 경학과 문학이 어떻게 비유와 상징으로 치환되어 상보적 역할을 하는지, 또한 풍성한 해석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김만중은 유가적 환경 속에서 성장해 살았던 전형적인 유학자이다. 동양에서 문사칠 즉 문학과 사상은 개별적이라기보다는 일체적 내지는 상보적관계이다 그렇다면 그의 소설 『구운몽』에는 이러한 사상이 어떻게든 표현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8인(人)은 8조목을 의식한 김만중에 의해서 선택되고 의도된 ‘8인(人)’이요, 각 인물별 개체적 성격은 그가 표현하고자 했던 8조목이 그대로 투사되었을 것이다. 본 논문은 그것이 대학의 8조목의 상징으로 의도적인 표현되었다고 보고 그것을 추적, 분석해보고자 한다.

경학적 소양을 갖춘 유학자 김만중이 유불도 3교를 그린 문학, 『구운몽』을 통해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수료

반드시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구운몽』의 8선녀를 『대학』의 8조목과 같이 비교해 봄으로써 『구운몽』과 김만중, 김만중의 문학과 경학의 통합에 대한 새로운 연구의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으리라 본다.

□ 김만중, 『구운몽』, 양소유, 8선녀, 유가, 『대학』, 8조목

## 1. 서론

본 논문은 『구운몽』<sup>1)</sup>에 등장하는 인물들 즉, 성진이자 양소유인 주인공과 그 상대인 팔선녀이자 현생 8부인이 『대학』의 8조목과 어떻게 관계 맺음을 하고 있는가, 또 어떻게 문학적으로 비유·상징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즉, 『구운몽』에서 어떻게 『대학』의 8조목을 8선녀로 치환하여 해석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학』의 8조목은 명덕을 밝히고 백성을 새롭게 하여 지극한 선에 머무르는 과정을 단계화하여 설명한다. 필자는 이것이 곧 『구운몽』이 아홉 등장인물, 그러니까 양소유와 8선녀가 인연을 맺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대학 8조목을 상징적으로 그려낸 것이라고 본다. 이를 통해 경학과 문학이 어떻게 비유와 상징으로 치환되어 상보적 역할을 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동양에서 8의 상징은 다양하다. 『설문해자』에 보면 ‘팔(八)’은 ‘떨어지는 것이니, 모양이 서로 갈라져 등을 지고 있는 모습(別也, 象分別相背之形)’이라 하였다. 즉, ‘분리’를 의미한다. 또, ‘팔(八)’은 ‘여덟’이라는 수(數) 의미 외에도 ‘八方’인 ‘동·서·남·북·동북·동남·서북·서남’을 상징하

1) 정규복, 『구운몽원전 연구』, 일지사, 1988. 이하 『구운몽』의 원문 인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저본으로 한다. 한글 번역본은 김만중·송성욱 옮김, 『구운몽』민음사, 2003을 저본으로 하고 필자의 의도를 반영해 원문을 번역하였다.

여 ‘각 방면·각 방향’, ‘전체·전부’의 의미를 가진다. ‘팔(八)’은 불가사의한 ‘팔괘(八卦)’의 모습에서 신비한 숫자로 인식되기도 한다. 팔괘란 음(-)과 양(--의 대립되는 두 요소를 조합하여 우주원리를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유교에는 ‘팔유(八儒)<sup>2)</sup>와 ‘팔덕(八德)<sup>3)</sup>이 있고, 불교에는 ‘팔고(八苦)<sup>4)</sup>와 ‘팔계(八戒)<sup>5)</sup>가 있으며, 도교에는 ‘팔선(八仙)<sup>6)</sup>과 ‘팔괘(八卦)<sup>7)</sup>가 있다. 이처럼 8은 문화 전반에 많은 상징을 가지며, 단지 숫자를 넘어 철학적 내용도 함의하고 있다.<sup>8)</sup>

김만중 또한 8이라는 숫자를 이와 같이 인식하였을 것이다. 김만중은 유가적 환경 속에서 성장해 살았던 전형적인 유학자이다. 그렇다면 그의 소설 『구운몽』에는 이러한 사상이 어떻게든 표현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유가 숫자의 상징성 중 ‘2·5’(음양오행) 만큼 중요한 ‘8조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8인(人)은

- 
- 2) 공자(孔子)가 죽은 후(後)에 갈라진 유교(儒敎)의 여덟 학파(學派). 곧, 자장씨(子張氏), 자사씨(子思氏), 안씨(顔氏), 맹씨(孟氏), 칠조씨(漆雕氏), 중량씨(仲良氏), 손씨(孫氏), 악정씨(樂正氏)의 여덟 파(派).
  - 3) 효·제·충·신·예·의·염·치를 가리킨다. ‘효제충신’은 <맹자 孟子>에서, ‘예의염치’는 <관자 管子>에서 비롯되었는데, 이 둘을 합하여 8덕이라 한다.
  - 4) 중생들이 받는 여덟 가지 고통으로, 생고(生苦), 노고(老苦), 병고(病苦), 사고(死苦), 애별리고(愛別離苦), 원증회고(怨憎會苦), 구부득고(求不得苦), 오음성고(五陰盛苦)를 이른다.
  - 5) 팔계(八齋戒)·팔계재(八戒齋)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데, 기본적으로 재가자가 하루 동안 받아 지키는 여덟 계율을 의미한다.
  - 6) 도가에서 말하는 종리권(鍾離權), 장과로(張果老), 한상자(韓湘子), 조국구(曹國舅), 여동빈(呂洞賓), 이철괴(李鐵拐), 남채화(藍采和), 하선고(何仙姑) 등 8인의 신선을 말한다. 각각 빈, 부, 귀, 천, 노, 소, 남, 녀 등 삶의 모습을 다양하게 상징하는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 7) 역학(易學)에서 자연계와 인간계의 본질을 인식하고 설명하는 기호로 건(乾: ☰, 하늘) · 태(兌: ☱, 연못) · 감(坎: ☵, 물) · 리(離: ☲, 불) · 진(震: ☳, 우레) · 손(巽: ☴, 바람) · 간(艮: ☶, 산) · 곤(坤: ☷, 땅) 말한다.
  - 8) 조승아, 「중국 숫자의 함의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71~79쪽.

8조목을 의식한 김만중에 의해서 선택되고 의도된 '8인(人)'이요, 각 인물 별 개체적 성격은 그가 표현하고자 했던 8조목이 그대로 투사되었을 것이다.<sup>9)</sup> 본 논문은 8선녀가 『대학』 8조목의 의도적인 상징으로 보고 그것을 추적, 분석해보고자 한다.

김만중과 『구운몽』에 대한 연구는 상당 부분 축적되었다고 본다. 특히 김만중 개인에 대한 사상, 문학에 대한 논문과 『구운몽』의 분석, 서지학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진 상태이다.<sup>10)</sup> 하지만 최근 『구운몽』과 '태극도설'을 연결하여 연구한 논문이 있지만,<sup>11)</sup> 경학과 문학을 연결하는 연구는 여전히 많지 않다. 특히 현대 학자 중 『대학』의 8조목을 국문학과 연결하여 연구한 논문은 발견하기 쉽지 않다.

김만중은 성리학의 보수적인 가풍 속에서 성장한 정통 유학자이면서 유불도 3교의 소재를 다룬 소설을 썼다. 즉, 경학적 소양을 갖춘 유학자가 유불도 3교를 그린 문학을 통해 반드시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구운몽』의 8선녀를 『대학』의 8조목과 같이 비교해 봄으로써 『구운몽』과 김만중, 김만중의 문학과 경학의 통합에 대한 새로운 연구의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으리라 본다.

9) 김만중은 유가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성장했다. 그의 가학과 학파·문인들을 살펴보면 유학을 무시할 수가 없다. 또, 김만중을 유·불·도 삼교를 통섭한 작가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도 역시 그의 성장 배경과 가학의 연원을 보면 다소 무리가 있다. 관심 정도는 있을지언정 유학을 하향시켜 다른 사상과 나란히 할 사람이 아니다. 자세한 설명은 김병국, 최재남, 정운채 역, 『서포연보』, 서울대학교출판부, 1992. 전체내용 참조.

10) 연구 성과 목록은 박지경, 「구운몽연구」, 韓南大學敎育大學院 석사학위논문, 2001, 2~7쪽 참조. 박지경은 원전연구, 전기적 연구, 사상 연구, 비교문화적 연구, 정신분석학적 연구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11) 설성경은 8선녀를 주역의 팔괘를 상징한다고 해석하였으며 때로는 8괘로, 때로는 4상으로 때로는 음양을 상징한다고 하였다. 설성경, 「구운몽의 통시적 연구」, 새문사, 2007, 193쪽.

## 2. 『대학』과 김만중

‘대학’이란 여러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다. 책 이름으로서 『대학』이 있고, 고등 교육 기관으로서의 ‘대학’이 있고, ‘대인의 학문’이라는 의미의 ‘대학’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뜻으로 통합되기도 한다. 서명으로서의 『대학』은 대개 『예기』의 한 편이었지만, 송대 주희를 거치면서 경(經)의 반열에 올라섰다. 그 때문에 송대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채택한 조선에서 『대학』은 명실상부한 유학의 최고 경전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

『대학』은 유교의 다른 경전과 달리 세 개의 강령과 여덟 개의 조목을 제시하여 유가의 이론을 완벽하게 구성한 논문 형식을 갖추고 있다. 또한, 다소 형이상학적인 내용을 다룬 『중용』과 달리 실제적인 내용인 ‘실천과 경세(經世)’를 다룬다.

주희는 「대학장구서」에서 “『대학』이란 책은 옛날 태학에서 사람을 가르치던 법을 다룬 것(大學之書 古之大學所以教人之法也)”<sup>12)</sup>이라 하였다. 또 “국가가 백성을 교화하고 훌륭한 풍속을 이룩하려는 의도와 배우는 이들이 자신을 닦고 남을 다스리는 방도에 적으나마 반드시 보탬이 없지는 않을 것(然於國家化民成俗之意 學者修己治人之方, 則未必無小補云)”이라 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대학』은 유교적인 실천철학의 방법을 제시한 책이자 덕치주의의 개론서라 할 수 있다.

대학의 덕을 밝히는 여덟 단계인 8조목과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옛적에 밝은 덕을 천하에 밝히려 했던 사람은 먼저 그 나라를 다스렸다. 그 나라를 다스리려 했던 사람은 먼저 그 집안을 가지런히 했다. 그 집안을 가지런

12) 『대학·중용』, 학민문화사, 2000, 19쪽. 『대학·중용장구』의 이하 원문은 특별한 사유 없는 한 학민문화사 본을 저본으로 한다.

히 하려 했던 사람은 먼저 그 몸을 정갈히 했다. 그 몸을 정갈히 하려 했던 사람은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했다. 그 마음을 바르게 하려 했던 사람은 먼저 그 뜻을 성실히 했다. 그 뜻을 성실히 하려 했던 사람은 먼저 그 앎을 극진히 했다. 앎을 극진히 한다는 것은 사물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데에 있다.

사물이 파악된 후에 앎이 극진해지고, 앎이 극진해진 후에 뜻이 성실해지며, 뜻이 성실해진 후에 마음이 바르게 되고, 마음이 바르게 된 후에 몸이 정갈해지며, 몸이 정갈해진 후에 집안이 가지런해지고, 집안이 가지런해진 후에 나라가 다스려지며, 나라가 다스려진 후에 천하가 평정된다.<sup>13)</sup>

많은 학자들의 성과가 『대학』 8조목의 주석에 축적되어 있다. 특히 조선 성리학은 대부분 주자의 의견을 수용하여 ‘3강령 8조목’을 그대로 추종하였다.<sup>14)</sup> 그리고 김만중 가문은 그것의 정점에 있었다. 김만중은 조선 예학 가문의 인물이자 송시열과 같은 노론이었다. 김만중의 증조부는 이이의 학통을 이어 서인의 사상적 흐름을 주도한 김장생이고, 송시열은 그 김장생의 학통을 이어 이어받은 제자이다. 게다가 김만중은 송시열을 존경하고 본보기로 삼겠다고 말을 했다.<sup>15)</sup> 우암 송시열은 대표적인 주자학파였으니

13) 주희, 위의 책, 46~52쪽. 古之欲明明德於天下者, 先治其國, 欲治其國者, 先齊其家, 欲齊其家者, 先修其身, 欲修其身者, 先正其心, 欲正其心者, 先誠其意, 欲誠其意者, 先致其知, 致知在格物, 物格而后知至, 知至而后意誠, 意誠而后心正, 心正而后身修, 身修而后家齊, 家齊而后國治, 國治而后天下平.

14) 주희는 『대학』의 팔조목의 구성을 6장 성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전문의 구조를 분석해보면, 5장 격물·치지, 7장 정심·수신, 8장 수신·제가, 9장 제가·치국, 10장 치국·평천화와 같이 모두 두 조목을 함께 이어놓았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소설의 등장인물인 8선녀와 8조목을 대응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그것을 다시 각 조목으로 분리하였다. 장의 분절은 金東敏, 「권근(權近)의 『대학장구(大學章句)』 전문(傳文) 체제에 대한 변론」, 『儒教思想文化研究』 77, 2019, 10~12쪽 참고.

15) 김만중과 송시열의 관계가 잘 드러나는 문헌은 『서포연보』이다. 『서포연보』에서 송시열은 여러 번 등장하는데 그 대표적인 구절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乙卯 肅宗大王 元年 府君 三十九歲 … 上疏辭職復申自劾之義 不許> 且宋時烈李惟泰及裁判書宋浚吉此三人 臣所尊慕矜式 以前後臺論 極其醜詆 時烈被罪之初 臣嘗借引古人爲師自劾之義 … 蓋兩宋 及 草廬 皆是曾祖 考沙溪文元公門人 府君

김만중도 그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을 것을 명약관화하다.<sup>16)</sup>

『서포만필』에 보면 『대학』에 대한 김만중의 생각을 짐작할 수 있다.

‘격물’ 두 글자에 실로 이치를 궁구한다는 뜻이 있음을 보지 못해 평소 스스로 우둔하고 침체함을 탄탄해왔다. 그러다가 『택당집』에 계곡의 말이 기록된 것을 보고서야 곧 앞 시대의 철인(哲人)들도 이러한 병폐가 있었음을 알았다. … 무릇 격물의 뜻은 정자가 이미 상세히 말했거늘, 성인에 가까운 인물인 주자도 30여 년이 지난 뒤 실지에서 용공(用功) 공부를 통합하여 겨우 터득할 수 있었다. 나는 정신이 어둡고 소견이 궁색한데다가 오랜 세월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자의와 문장의 기세만 가지고 터득하려 했으니 대단히 어리석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사람들이 ‘격물’ 두 글자를 읽고서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고 수신(修身)·정심(正心) 등의 글자와 한 가지 예로 간과하는 것은 아무래도 너무 안일한 것 같다.<sup>17)</sup>

김만중은 『대학』의 ‘격물’에 대해 오랜 시간 궁구하고 있다가 『택당집』을 보고서 선대의 학자들도 그와 같이 오랜 시간을 연구하였던 것을 알았

---

雖未嘗受業 而視爲師表 於尤庵 尊敬尤至. 김만중은 송시열을 ‘사모하고 삼가 본보기로 여겨 스스로 사직하였다. 김병국, 최재남, 정운채 역, 『서포연보』,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2, 101쪽.

16) 김만중의 주자학에 대한 학풍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은 위의 책(『서포연보』) 102쪽. 을묘년 계축일, ‘癸丑 入侍召對言事 被嚴旨 命姑先罷職’조이다. 김만중이 경연관으로 윤희의 의견을 반박하는 내용에 ‘송명이래로 모두 주자의 주석을 숭상하였고, 우리나라는 더욱 주자를 존송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종(朝宗)의 조정(朝廷)에서 경연을 할 때 이것을 중시 여겼습니다. 또한 주자의 주석 가운데 『논어』의 주가 가장 적절하고 분명하니 성학(聖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삼감께서 옥체가 수고로우실 것을 염려해서라면 조금씩 시험하면서 행함이 옳을 것이지 어찌 입을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宋明以來 皆尙集註 我國 尤尊朱子 故祖宗朝 經筵 以此爲重 且朱子註中 論語註 最深切著明 聖學所不可關 若慮聖躬 勞苦 則稍試若行可也 何可言不必讀乎)에 잘 드러난다.

17) 김만중, 심경호 옮김, 『서포만필 상』, 문학동네, 2020.

다고 했다. 그리고 주자와 같은 사람도 30년 동안 생각과 연구를 한 뒤에 겨우 그 뜻을 얻었다고 말한다.

계곡(谿谷) 장유(張維)는 주자와 다른 해석을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다. 김만중이 장유 같은 사람도 있음을 보고 자신이 『대학』에 대한 부족함을 알았고 말한다.<sup>18)</sup> 달리 말하면, 『대학』의 ‘격물치지’장은 대학자들이 모두 오랜 시간 궁구했던 문제이기에 김만중도 『대학』에 대해 많은 공부와 시간을 들였을 것으로 보인다.

유학자, 선비는 학문을 닦아 벼슬자리에 나아가 백성들을 교화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은 사람이다. 김만중 또한 예외는 아니었다. 김만중은 벼슬살이를 시작하자마자 정치의 중심에 있는 정치가로, 또는 유학의 경전을 공부하는 경학자로, 그리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교화시키는 관료로,<sup>19)</sup> 또 글을 쓰는 문학가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김만중이 『대학』의 8조목을 ‘교화’의 측면에서 문학을 연결시키려는 시도를 했을 수 있다.

### 3. 『대학』의 8조목과 8선녀의 관계

#### 1) 진채봉·계섬월과 격물·치지

양소유와 진채봉과 계섬월의 만남은 ‘과거’라는 사건을 매개로 이루어진 다. 『구운몽』에서 양소유가 천하의 일(事)에 처음 나아가는 것 즉, 평천하

18) 장유와 김만중의 학문적 견해에 대한 언급보다 장유의 글을 읽고 김만중 자신의 『대학』에 대한 고민정도를 표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의 책 265쪽에 보면 다른 경전에 대한 글이 많은데 『대학』에 관한 언급은 이 편과 260쪽 ‘효경의 가치’편이 있다.

19) 그는 현종 12년(1671)에는 암행어사로 용인, 파주 등 경기도의 여러 고을을 돌아보고 진휼을 게을리 한 수령들과 직무에 뛰어난 수령들을 조정에 보고하였다. 이때 지은 5언 절구의 시 8수가 그의 문집에 남아 있다. 김병국, 최재남, 정운채 역(1992), 앞의 책, 69쪽.



의 시작인 격물치지(格物致知)는 과거로 치환할 수 있다.

선비의 목적은 정해져 있다. 출사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하거나 은거하며 자신을 수양하고 학문을 닦는 일이다. 선비는 배운 것을 백성들을 위해 써야 한다. 또 백성들에게 좀 더 많이 베풀기 위해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그래서 “벼슬하면서 남은 힘이 있거든 배우고, 배우면서 남은 힘이 있거든 베풀하는”<sup>20)</sup> 신분이다. 또한 선비는 세상을 평천하로 이끌어가는 핵심 주체이다. 그러므로 선비가 베풀하는 것은 바로 평천하의 시작이 된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과거’이다. 평천하의 시작이 격물에 있기에 포의한사인 양소유의 일(事)은 격물의 상징인 과거에서 시작한다 할 수 있다.<sup>21)</sup>

진채봉은 바로 양소유가 천하의 일, 출사를 위해 과거에 보러가는 과정에서 만난 첫 여인이다. 처음은 잘 몰라 항상 모호함과 위험이 상존하다. 그러나 ‘다가감(格)’을 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무모하리만큼 과감한 용기와 직관적 판단, 그리고 그것에 ‘다가섬’이 필요하다. 진채봉은 그런 여인을 상징한다.

그들의 첫 만남은 단지 두 눈만 살짝 마주치고 말 한 마디도 건네지 못하지만 그것이 시작이다. 두 사람은 즉물(卽物)을 하게 된 것이다. 그 순간 진채봉은 ‘양소유가 자신의 연인임’을 직관적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당시 사회적 통념을 뛰어 넘는 적극성을 지니고 양소유에게 다가간다.

“속을 생각하기를 여자가 장부를 좇음은 평생의 큰일인데, 일생의 영욕과 백년 고락이 모두 장부에게 달렸으니, ... 이제 나는 처녀의 몸이어서, 비록 스스로 중매하는 거리낌이 있을지라도, 신하도 또한 임금을 가린다는 옛말이 있지 아니한가?”<sup>22)</sup>

20) 『論語』 「子張」 “子夏曰 仕而優則學, 學而優則仕”

21) 格物の ‘物’을 주자는 事라고 해석했다(物, 猶事也). 즉 ‘일삼음’이다. 어떤 대상일 수도 있지만 ‘작위를 해야만 하는 일’로 해석한 것이다. 그러므로 격물은 ‘과거의 보러가는 행위를 하는 곳으로 나아감’이라고 해석된다.

“삼생(三生)의 연분은 중하고 한때의 내키지 않음은 적다고 여기십니다. 이에 도리를 버리고 임시방편을 따라 수치스러움을 간직하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노첩(老妾)으로 하여금 낭군의 성씨와 본관을 알아보고, 또 혼인 여부까지 알아 오라 하셨습니다.”<sup>23)</sup>

진채봉은 양소유가 지은 ‘양류사’를 보고 사모하며, 자신의 목표(목적)를 마음속으로 다짐한다. 이러한 과정이 순간 일어난다. 사대부의 여식인 자신의 모든 것을 양소유와의 사랑에 건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하가 임금을 따르고 따르지 않고를 선택하듯’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사대부집 여성이 감히 실행하기 어려운 일이다. 특히나 예학의 종장 집안에서 성장한 김만중의 입장에서 본다면 획기적인 사고인 것이다.

그녀의 이러한 태도는 점점 더 적극성을 띄게 된다. 그의 출신도 성씨와 본관도 모른 채 혼처를 구한 것이다. 사대부 여식이 자신의 사랑을 직접 선택하고, 당장 실천하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이러한 행동은 양소유와의 인연을 중시할 뿐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감수한 행동이다. 자신의 신분과 처지를 모두 버리고 양소유라는 미지의 세계에 뛰어드는 것이다. 이것이 천하의 일에 다가가는(格物) 적극적인 태도이며, 자신의 모든 것을 한순간의 인연에 기대는 가장 큰 모험이다.

또한 “노야(老爺)께서 만약 물으시면 장차 어찌 대답하리까? ... 이는 내 스스로 그 일을 감당할 것이니, 할멈은 염려하지 말게.”<sup>24)</sup> “상공께서

22) 정규복(1988), 앞의 책, 175쪽. 乃思惟曰, 女子從人終身大事, 一生榮辱百年苦樂, 皆係於丈夫故, 卓文君以寡婦而從相如, 今我即處子之身也, 雖有自媒之嫌 臣亦擇君古不云乎?

23) 정규복(1988), 위의 책, 176쪽. 三生之緣重, 一時之嫌小也, 是以舍經從權包羞冒慚, 使老妾問郎君姓氏及鄉貫, 仍探婚娶與否矣.

24) 정규복(1988), 위의 책, 176쪽. 乳媪曰 謹當如教而異時, 老爺若有問則將何以對之乎? 小姐曰 此則我自當之汝勿慮焉.

혹시 이미 장가를 들어 아내를 맞이하였거나, 혹은 이미 정혼을 하였으면 어찌하오리까? ... 불행하게도 이미 아내를 얻었으면, 내 굳이 첩이 되기를 꺼리지 아니하거니와 ...”<sup>25)</sup> 등은 자신의 다가올 미래에 대해 전혀 타협하지 않는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격물은 자신의 목표에 대한 자각과 적극적인 다가섬에 대한 적극성과 용기가 필요한 단계인 것이다.

첫 단계는 앞으로 많은 단계가 있음을 암시한다. 그리고 그 각각의 단계는 미리 알 수 없다. 즉, 각 단계는 위험하고 어지럽고(紛亂) 미래를 알 수 없는 모호함으로 가득 차 있다.

양생이 크게 놀라 옷매무새를 바르게 하고 밖으로 나가, 거리에 서서 그것을 본즉, 병기를 잡은 군사들과 괴란하는 사람들이, 산과 들을 온통 휩쓸어 에워싸며 북적거려 어지러이 흩어져 돌아오니, 군사들의 소리가 땅을 진동하고 곡소리가 하늘에까지 울려 퍼지고 있었다. ... 양생이 어리둥절 두려워하다가, 마침내 서동을 데리고 나귀에 채찍질하며 갈 길을 재촉하여 남전산(藍田山)을 바라보고 가서, 깊은 골짜기 틈으로 도망해 숨으려 하였다.<sup>26)</sup>

모든 단계는 어려움과 그에 따른 시련이 있지만 특히, 첫 단계에서는 말할 것도 없다. 날이 밝기를 학수고대하는 양소유에게 다가오는 것은 병란(兵亂)이다. ‘그날 저녁에 당장’ 만남을 내일로 잠시 미뤘던 사소함 때문에 그 두 사람의 앞날에 크나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양소유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빨리 그 격변의 공간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진채봉을 잇는다.

25) 정규복(1988), 위의 책, 175~176쪽. 不幸已娶則 我固不嫌爲副而我觀此人, 年是青陽恐未及有室家矣.

26) 정규복(1988), 위의 책, 177쪽. 楊生大驚攝衣而出, 立街而見之 則執兵之亂卒, 避亂之衆人, 籠山絡野紛駢雜還, 軍聲動地哭響于霄. ... 生慌忙驚懼, 遂率書童鞭驢促行, 望藍田山而去, 欲竄伏於巖穴之間矣.

순간의 마주침, 그리고 그 일(事)에 다가감 즉, 격물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격물이 다음 단계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격물의 대상이 정해지고 나면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다. 실패하지만 다가가기를 반복하다보면 언젠가는豁然貫通(豁然貫通)하는 경지에 이르기 때문이다. 처음은 실패하기 마련이고 또 다시 시도하고 시도해야만 길(道)에 들어서게 된다.

시작은 다음 단계를 제시할 뿐 완결이 아니다. 진채봉은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외부의 환경에 의해 그녀의 운명이 한순간에 변한다. 급작스럽고 타의적인 요인으로 양소유와 이별하게 된 후, 진채봉은 가문이 적물하고 자신은 궁녀로 잡혀가는 시련을 견뎌내야 하는 처지에 빠진다. 처음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처음은 최종에 이르는 과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것은 마치 진채봉이 계섬월에 의해 그리고 이소화에 의해 계속적으로 양소유의 곁에 존재하는 것과 같다.

양소유는 진채봉과 급작스런 병란으로 이별을 하고 피난을 가서 큰 경험(남전산에서 도사를 만남)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다음, 또 다시 과거를 보기 위해 길을 나선다. 그 과정에서 계섬월을 만난다.

계섬월은 기녀의 신분이다. 그럼에도 그녀가 당대 내로라하는 선비들을 꺾을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과거의 당락까지도 알 수 있는 ‘앎(知)이 지극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저 낭자의 성은 계(桂)요, 이름은 섬월(蟾月)이라고 하는데, 다만 자색과 가무가 천하에 뛰어날 뿐만 아니라, 고급 시문에 통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또한 시를 보는 눈이 더욱 오묘하여 귀신과 같이 영묘하다네. 낙양의 여러 선비가 과거를 보고 계섬월에 오면 그들이 지은 글을 계랑(桂娘)이 한 번 보고 그 합격과 낙제를 단정하는데, 말과 꼭 들어맞아 일찍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으니, 그神通한 감별력이 이와 같다네. 이리므로 우리가 각각 지은 글을 계랑에게

보내어 그 품제(品題)를 살펴보면, 그 중 눈에 드는 것을 골라 노래에 실어, 관현(管絃)으로 연주하고 그 고하를 정하곤 하였네.<sup>27)</sup>

계섬월은 기녀의 신분으로 치지의 극(極)의 위치에 있는 인물이다. 고급의 시문에 통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앎(知)이 지극하다. 그녀의 안목은 ‘모든 사물에 체화되어 그 어느 것도 빠뜨리지 않은(體物而不可遺)’<sup>28)</sup> 귀신과 맞먹을 정도다. 그녀의 치지는 자신의 지식(인식)을 사물 전체 즉, 궁극처까지 이르게 하였다(言欲致吾之知在即物 而窮其理也). 그렇기에 선비의 시문을 판별하여 급제의 당락을 알아맞히는 경지에 이른 것이다. 달리 말하면, 그녀가 급제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양소유도 그녀를 ‘오늘은 좌중의 계경이 곧 시험관이라. 글을 바칠 시각이 지났는지 두려워하노라(今日座中桂卿即考官也, 納卷時刻恐不及也)’라고 평가한다.

악(樂)은 유학의 핵심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중요한 위치와 상징성을 갖는다. 그래서 선택한 시제에 곡을 붙여 노래를 하는 정도의 학식이라면 유학의 정통한 사람이라 볼 수 있다.

주지는 치지를 설명하면서 미루어 넓혀간다(推廣去)거나 미루어 열어간다(推開去), 등으로 해석하였다.<sup>29)</sup> 미루어 넓혀가고 열어가되, 지극히 하는 것이 곧 치지이다. 즉 ‘자신의 떠나 다른 곳으로 확장해 나간다’는 말이다. 계섬월은 양소유에게 자신을 떠나 또 다른 세계, 단계로 확장시켜 나가게

27) 정규복(1988), 위의 책, 182쪽. 彼娘子姓桂名蟾月, 非但姿色歌舞獨步於東京, 古今詩文無所不通, 且其詩眼尤妙矣 靈如鬼神, 洛陽諸儒納卷 而來則一閱其文, 斷其立落言如符合, 未嘗一失 其神鑑如此也 以是吾輩各以所製之文, 送於桂娘經其品題, 取其入眼者載之歌曲, 被之管絃以之 而定其高下.

28) 주희, 앞의 책 16장, 125쪽.

29) 황금중, 「주자의 공부론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181쪽, 재인용. 致知工夫, 亦只是且據所已知者, 玩索推廣去. 具於心, 本無不足.(朱子語類 15-6.), 他所以下格字 致字者, 皆是爲自家元有是物, 但爲他物所蔽耳. 而今便要從那知處推開去, 是因其所已知而推之, 以至於無所不知也.(語類 15-48.)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치지를 실현시키고 있는 것이다.

계섬월을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곧 양소유에게 그것은 적경홍과 정경패를 소개하는 일이다.

“낭군이 이르는 사람은 필연 진어사의 딸 채봉(彩鳳)이옵니다. … 진낭자는 친척과 더불어 자못 사귀어 친하여진 정의가 도타웠사옵니다. … 지금 그를 생각하는 것은 또한 무익한 일이옵니다.”<sup>30)</sup>

“첩이 익히 들은 바로는 장안 사람들이 서로 다투어 칭찬하기를, 정사도(鄭司徒)의 여식이 압전하고 정숙한 고운 자색과 그윽하고도 한가한 덕이 지금의 여자 중 제일이라 하옵니다.”<sup>31)</sup>

낭군 말이 진실로 우물 안 개구리와 같사옵니다. … 천하에는 뛰어난 세 사람의 기생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강남의 만옥연(万玉燕), 하북의 적경홍(狄驚鴻) 그리고 낙양의 계섬월(桂蟾月)이옵니다.”<sup>32)</sup>

계섬월은 진채봉과도 얹어 있다. 그녀들은 서로 사귀어 정의가 깊은 관계이다. 그리고 지금 양소유가 그녀를 생각하고 있는 것을 소용없는 일이라 충고를 한다. 진정한 얹어 자세는 자신의 일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주변의 사물과 끊임없이 관계를 맺게 한다. 그래서 진채봉보다 뛰어난 여인으로 정경패를 추천한다. 또, 적경홍에 대한 이야기도 한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계섬월은 양소유에게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다음 단계를 제시하는 인물인 것이다.

30) 정규복(1988), 앞의 책, 184~185쪽. 蟾月曰 郎君所言者必是秦御使女彩鳳也. … 秦娘子與賤妾情誼頗稠密矣, … 而今雖思之亦無益矣.

31) 정규복(1988), 위의 책, 186쪽. 然妾飽聞長安之人爭相稱道曰 鄭司徒女子窈窕之色 幽閒之德, 爲當今女子中第一, 妾雖未親見 大名之下本無虛事, 郎君歸到京師 留意訪問是所望也.

32) 정규복(1988), 위의 책, 185쪽. 郎君之言誠如井底蛙矣, 妾姑以吾娼妓中公論 告於郎君矣, 天下有青樓三絕色之語, 江南万玉燕 河北狄驚鴻 洛陽桂蟾月.

앞서 말한 것처럼, 선비에게 과거는 평천하의 시작이고, 격물은 사건에 처음 마주하는 일이다. 이때 필요한 것이 곧, 사물과 직접 마주치는 용기이다. 그리고 다음은 지속적으로 앎이 하나도 이르지 않음이 없게 하는 데 있다. 첫 단계는 결정되어 있지 않고 모호하며 격변하는 상황에 마주해야 한다. 앎을 지극하게 이룸(致知)은 격물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지극한 앎’으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물의 궁극처까지 앎이 다음의 단계를 제시한다. 그래서 계شم월과 양소유와의 이별은 진채봉과는 달리 자발적이고 능동적이며, 새로운 세계를 위한 이별 즉, 떠남을 통해 더 넓은 세계에 들어가게 하는 계기이다.

## 2) 정경패·가춘운과 성의·정심<sup>33)</sup>

외부의 대상에 대해 앎을 구한 후 그것을 얻고자 할 때(求知至於至善之所在, 求得至於至善之事)<sup>34)</sup>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속임’이다. 정경패와 가춘운의 만남은 ‘속임’이라는 매개가 등장한다.

양소유와 정경패의 만남은 두련사를 통해 이뤄진다. 양소유는 계شم월을 통해 이미 정경패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두련사에게 그녀에 대한 말을 들었을 때 그녀의 재덕(才德)을 짐작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선뜻 인정하지 않고 극구 자신의 눈으로 그녀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는 스스로 혼처를 정하기로 한 듯(求婚) 마음을 정한 것이다.

33) 정심 단계부터 정심과 수신, 수신과 제가, 제가와 치국, 치국과 평천하로 두 단계를 하나의 장으로 묶어져 있고 주자도 함께 묶어 해석하였다. 이는 각 단계들이 분절되어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연속적인 ‘과정’ 상태에 있음으로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설명과 이해를 돕기 위해 나누어 해석한 하하고자 한다. 또 나누어 해석하고 합하여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단계가 명확히 드러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리고 그 나누는 과정이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그 핵심 내용으로 삼는 개념에는 다소 차이가 있음도 말해둔다.

34) 이황, 이광호 옮김, 『성학십도』, 홍익출판사, 2001, 128쪽.

이 과정에서 양소유는 자신의 욕망, 즉 정경패에 대한 이성적 욕망에 사로잡혀 한 가지 과오를 범하게 된다. 자신의 존재를 속이는 일을 한다. 성의·정심이 격물·치지와 크게 구별되는 점은 바로 외부의 사물(事物)에 대한 ‘앎(知)의 단계에서 자신의 문제로 전환하는 실천(行)의 단계’라는 점이다. 격물·치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실제 자신의 문제에 직접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 성의이다. 그래서 성의의 핵심은 신독(慎獨)으로 대변된다. 신독이란 자기만 아는 곳에서조차도 삼가는 것이다(獨者, 人所不知而已所獨知之地也: 주자주). 소유는 자기만 아는 곳에서도 삼가고 진실 되고 망령되지 하는데 자신의 욕구 때문에 성(誠:眞實無妄)을 잃어버린다. 정경패도 그렇다.

“내가 몸을 사랑함이 옥같이 하고, 마음가짐을 편안히 하여, 발자취가 중문을 나서지 아니하였고, 친척과도 말을 나누지 아니함은 춘랑이 알고 있는 바이라. 그러나 하루아침에 남한테 속임을 당하여, 문득 씻기 어려운 수치와 모욕을 받았으니, 이제부터 어찌 차마 낮을 들어 사람들을 대하겠느냐?

...

내 처음으로 유의하여 그를 보았는데, 그 용모와 몸가짐이 여자와는 크게 달랐으니, 이는 필시 간사한 사람이 춘색(春色)을 엿보려고 변복하고 온 것이라.<sup>35)</sup>

양소유와 정경패와의 만남은 수월하지 않았다. 정경패는 양소유가 악(樂)으로 자신을 속였다고 생각한다. 양소유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변색을 하고 들어와 자신을 속였으니 그녀는 수모를 당한 셈이다. 즉, 자신은 명문귀족의 딸로 규범을 몸으로 실천하여 스스로 지켜야 할 규중의 도(閨中之道)를 지켰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속임을 당해 씻기 어려운 수치와 모욕’을 받은 것이다. 이것은 정경패에게는 ‘진실로 마음에 부끄러움이

35) 정규복(1988), 앞의 책, 193쪽. 吾動身如玉 持心如盤 足跡不出於重門 言語不交於親戚 乃春娘之所知也 一朝爲人所詐 忽受難洗之羞辱自此何忍舉面對人乎 … 我始有疑而見之 其容貌舉止與女子大異 是必詐僞之人 欲賞春色而變服而來矣.



없으되, 남에게 속임을 당함이 이에 이르고 보니, 분개하여 화가 나 죽을 듯한' 상황인 것이다.<sup>36)</sup> 아무도 모르지만 자신만은 삼가지 못했음을 알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진다. 그래서 정경패는 부모가 권유함에도 양소유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양소유는 장원급제를 하여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으로 변화했다. 그래서 부모조차도 양소유가 변색하고 그녀를 속임을 탓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직 그녀만 양소유를 용서하지 못한다.

그녀는 왜 남들(부모조차도)이 허물될 것이 없다고 한 것을 수용하지 못하는가? 다른 이는 알지 못하지만 자신만 아는 것, 자신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성의'는 악취를 싫어하듯 본능적으로 나오는 반응과 같다. 이것은 다른 이를 위해서, 다른 이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세로 신독을 말한다(『대학』:所謂誠其意者 毋自欺也 如惡惡臭 如好好色 此之謂 自謙 故君子 必慎其獨也). 즉, 자신만이 아는 곳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신독의 자세로 참되고 실다워 망령됨이 없는 뜻을 간직하는 것이 성의의 핵심이다.

자신에 속임이 없으면서 스스로 만족함을 강조하는 인물은 정경패이다. 김만중은 그녀를 8선녀 중에서 가장 모범에 가까운 인물로 그리고 있다. 그녀는 조선 성리학적 사고에 순응하며 절개를 지키기 위한 올곧은 마음이 짐을 소유한 여성이다. 그래서 양소유가 자신을 속여 가면서까지 직접 보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다가서는 인물로 그려낸 것이다. 또한 유학 사상의 핵심 중 하나인 악(樂)에 정통한 인물이면서 당시의 규중지도(閨中之道) 철저히 지키는 여성이다.<sup>37)</sup> 한 마디로 하면 김만중이 그리는 이상적인

36) 정규복(1988), 위의 책, 195쪽. 小女之心實無所愧, 見欺於人 一至於此, 以是憤恚欲死爾.

37) 악(樂)은 단순히 음악이 아니라 유학의 핵심을 설명하는 개념이지만 본 논문의 취지와 관련성이 적으므로 논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경패는 양소유가 연주한 곡을 해석할 정도로 악에 조예가 깊다. 양소유와 정경패가 악을 매개로하여 만나고, 여성으로 유학의 핵심인 악을 이해한다는 점에서 정경패는 8선녀 중에서 제일 부인이 된다고

여인상이라 할 수 있다. 그것에 핵심에 ‘성의’가 있음을 물론이다.

결국 ‘스스로 만족함’을 얻지 못한 정경패에게는 아직 마지막 관문인 자존심의 회복 및 양소유의 속임에 대한 해결이 남아 있다. ‘진실한 뜻’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다. 성의의 결과 단계인 정심(正心)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완성시키기 위한 가춘운이 등장하는 이유이다.

가춘운은 정경패의 시비이기 때문에 신분뿐만 아니라 정리(情理)상으로도 정경패에게 매어있을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그래서 그녀는 소극적이며 의타적이다. 또한, 양소유와 인연을 맺음에서도 자신이 모시는 정경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 달리 생각하면 정경패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인물일 수 있다. 하지만 가춘운은 시비이지만 잠시도 떨어질 수 없는 봉우이기도 하다. 고귀한 신분과 천한 신분이 봉우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밑바탕에 가춘운의 ‘바른 마음’이 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인과 시비로 그려지지만 자신의 감정의 문제로 전환되면 마음을 바르게 다잡아가는 인물이 가춘운이다.

그렇다면 가춘운이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지 살펴보자.

가여워라, 그대. 옥 같은 사람과 친함을 크게 얻었네 憐渠最得玉人親  
(옥인의) 발걸음 옮길 때 마다 서로 따르며 잠시도 버리지 않았었네.

步步相隨不暫捨

비단 장막 안에서 촛불 끄고 휘장 아래 띠를 풀 때 燭滅羅帷解帶時

너는 코끼리 침상 아래로 내팽겨쳐 버리겠지. 使爾拋却象床下<sup>38)</sup>

가춘운에게 ‘마음을 바르게 함’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달리 말하면 김만중이 정심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 할 수 있다.

김만중은 이해했다. 이소화도 약에 능통하지만 정경패에 비해 낮은 단계로 보인다.  
38) 정규복(1988), 위의 책, 195쪽.

위 시는 정경패가 시집가게 되면 기춘운 자신은 버려질 것이라고 표현한 시다. ‘귀한 사람의 신처럼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항상 떠나지 아니하더니 시집을 감’으로서 떨어짐을 안타까워하는 기춘운의 마음을 드러내 것이다. 하지만 그 기춘운의 마음은 자신이 버려지는 것을 서운해 하지 않고 함께 가지 못함을 서러워한다. 즉, 기춘운의 마음속에는 주인에게 버림받을 것(拋却)에 대한 개인적 두려움보다는 올바른 사람(誠意者)과 헤어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다.

마음을 바르게 한다는 ‘정심(正心)’장은 수신(修身)의 근본으로 제시되며, 희노애락의 감정 발휘와 연관하여 설명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분노, 즐거움, 두려움, 우환 등 4가지 감정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고 잘 살펴 바르게 해야 함을 강조한다. 마음은 몸의 주인이다. 그래서 항상 마음을 살펴 그 바름을 얻어야만 한다. 만일 바름을 얻지 못하면 마음이 작용하여 움직이는 것이 혹 바름을 잃을 수밖에 없다.<sup>39)</sup>

정심의 핵심은 바로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이다. 기춘운이 정성스런 마음을 보존하지 못했다면 그 몸을 검속할 수 없다. 그 마음이 바름에 있었기 때문에 보고, 듣고, 맛봄을 살펴 자신의 몸을 닦았다.<sup>40)</sup> 기춘운의 마음은 자신의 욕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은 사람,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에게 있다.

유학은 마음의 작용을 부정하지 않는다. 마음은 희노애락은 마음의 작용으로 발현되지 않을 때는 허령불매하지만 일단 발하여 그 절도에 맞아서 그 감정들이 바르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sup>41)</sup> 그래서 자신의 욕망에 치우치

39) 주희, 앞의 책, 105쪽. 所謂脩身, 在正其心者, 身有所忿懣, 則不得其正, 有所恐懼, 則不得其正, 有所好樂, 則不得其正, 有所憂患, 則不得其正. 주자주: 皆心之用, 而人所不能無者. 然一有之而不能察, 則欲動情勝, 而其用之所行, 或不能不失其正矣.

40) 주희, 위의 책 전 7장, 주자주 109쪽.

41) 주희, 위의 책, 45쪽. 喜怒哀樂之未發, 謂之中; 發而皆中節, 謂之和. 朱子注 喜怒

지 않고 마음을 가장 바르게(正心) 한 사람으로 김만중은 가춘운을 그렸다. 그녀는 자신의 행복과 욕망보다 정경패의 성취를 위해 행동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당시 김만중의 사고에서 보면 분수에 맞는 화(和)를 얻은 것이다.

정경패가 가지는 ‘분노’는 자칫 모든 것을 허물어뜨리는 계기가 된다.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항상 바른 마음을 가춘운의 존재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갖는다. 가춘운은 물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정경패의 시비이자 봉우인 사람이지만 심리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분노를 바로잡아 줄 바른 마음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다.

### 3) 적경홍·이소화와 수신·제가

양소유는 이제까지 오로지 자신을 위한 일에만 종사했다. 과거를 보러갔다가 실패하여 험한 일을 겪고(진채봉), 돌아와 머무른 다음 다시 과거를 보러 간다. 그러나 정작 과거를 보기도 전에 시험에 들고 그것을 통과하지 만(계섭월) 자신을 속이는 행동으로 인해 과거에 합격(급제)하고도, 혼인을 거절당하고(정경패) 성실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바로 잡은(가춘운) 다음에서야 갈등이 해결된다. 수신은 이러한 단계를 반복의 일을 거치면서 외적인 일로 나아가는 첫 단계이다.

수신은 내적인 인식의 단계를 넘어 실천의 단계로 접어드는 과정이며, 또한 지선(至善) 실천의 과정의 끝과 실천의 확대<sup>42)</sup>라는 과정의 바로 앞 과정이며, 8조목으로 보면 가운데 위치하는 단계이다. 수신의 전제 조건은 격물, 치지, 성의, 정심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요소들이 순차적 단계에 중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각하고 움직이며 실천하는 주체적인 동적(動的)노력이 갖추어져야 가능하다. 적경홍은 이런 과정에서 처음으로 만

哀樂, 情也. 其未發, 則性也. 無所偏倚, 故謂之中. 發皆中節, 情之正也, 無所乖戾, 故謂之和.

42) 이황, 이광호 옮김(2001), 앞의 책, 60쪽, 177쪽.

난 사람이다.

적경홍은 다른 인물들에 비해 특이점이 많다. 당시 시대상과 김만중 가문의 학풍을 고려하면, 다소 파격적인 인물 설정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적경홍은 다른 인물들과 달리 처음부터 실체를 드러내지 않는다. 처음에 ‘적백란’이란 이름으로 등장하며, 남장을 하고 다른 여인들과는 달리 스승과 벗을 구하고자 하는 문하생이 되고자 한다. 그리고 이전 인물들과 다른 과감하고 주체적인 행동을 보인다.

궁벽한 시골에서 자라나 아직껏 훌륭한 스승과 좋은 친구를 만나지 못하여, 학술이 조잡하고 얕으며 글이나 무술을 다 이루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일편 지심(一片之心)은 남아 있기에, 나를 알아주는 이를 위하여 죽고자 합니다. ... 상공의 문하에 의탁하여 답을 올리고 개를 도적질하는 천한 재주를 한번 일깨워 보고자 하였습니다.<sup>43)</sup>

적백란이 처음 양소유를 만나는 장면을 보면 그녀는 연인(戀人)을 구하지 않고 배움을 원하는 문하생이 되겠다고 한다. 이런 태도는 불의한 의도로 접근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살 수 있지만 적백란(적경홍)은 이미 계섬 일과는 아는 처지이기 때문에 양소유에 대한 정보도 알았다.<sup>44)</sup> 그리고 『구운몽』의 구조로 볼 때 친구보다는 기생 신분이 연인을 구하는 데 쉽게 접근할 수도 있다.

여기서 다른 여인들과는 적경홍이 왜 남장을 하고 기생이 아닌 친구로

43) 정규복(1988), 앞의 책, 209쪽. 生長窮鄉, 未遇碩師良友, 學術粗識 書劔無成, 尙有一片之心, 欲爲知己者死. ... 欲托門下, 一效鷄鳴狗盜之賤技矣.

44) 계섬일은 이미 양소유에게 적경홍을 소개하였고, 뒤에 서로 의형제임이 밝혀진다. 정규복(1988), 위의 책, 212쪽. : 妾本播州人 姓名狄驚鴻也. 自幼時與蟾娘結爲兄弟, (“첩은 본래 파주(播州) 사람이며, 성명은 적경홍(狄驚鴻)이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섬랑과 형제를 맺었습니다.”)

등장을 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든다. 혹시, 김만중이 이 시점에서 기생 신분  
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신분이 필요했던 것이 아닐까?

김만중은 처음으로 외적인 일을 수행할 때 외부의 환경, 자신의 도그마  
와 관습에 빠지지 않고(僻), 끊임없이 수신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필요했기  
에 그것을 적경홍으로 그려냈다. 적백란이 의지하는 것은 자신의 배우과  
기술이 완전하지 않음을 알고 배우고자 스승과 친구를 찾는, 내면을 향한  
자세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외적인 사물에 관심을 갖는 자세인 것이다.

적경홍은 자신이 이룬 것이 부족함을 알고, 자신을 낮추고, 배움을 청하  
는 자세를 보인다. 내적인 단계를 벗어나 수신에서 스승을 찾아 배우는 과  
정이다. 적백란은 새로 태어난 사람처럼 양적 성장을 통해 질적 비약을 설  
명하는 수신의 단계,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변화하는 단계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수신의 핵심은 살핌(察)과 편벽(僻)됨이 없는 것이며, 자신의 생각에만  
치우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가 친하게 여기고 사  
랑하는 사람에게 치우치기 쉽다. 그렇게 되면 좋아하면서도 그 단점을 알  
며, 미워하면서도 그 장점을 아는 객관적인 인지 상황에 도달하기 어렵다.

처음 적경홍은 양소유와 거리를 두며 그와 길동무가 되면서 신뢰를 쌓는  
다. 치우침(僻)의 폐해를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기 위함이다. 하지만 양소유  
가 계섬월을 다시 만나 재회의 기쁨에 빠지자(僻) 잠시 적경홍을 잊는다.  
즉, 치우침에 빠져 중(中)을 잃는다. 그럴 때 적경홍은 사라져 버린다. 그  
뒤 주위에서 적생이 계섬월과 희롱을 한다고 고자질하는 사람이 생기는  
등 많은 분란이 발생하며 오해를 불러오는 행동들이 양소유의 주변에 일어  
난다. 양소유는 살핌과 편벽됨의 시험에 든 것이다.

“계랑이 일찍이 적생과 서로 친하였는가?”

섬월이 이에 답하기를,

www.kci.go.kr

“첩과 적생은 비록 옛적에 별로 친한 적은 없으나, 그의 누이와 오랜 정분이 있는 까닭에 그 안부를 물었나이다. 첩은 본래 창루(娼樓)의 천한 여자요, 자연 이목에 익숙해져 서, 남녀를 서로 멀리하여 꺼릴 줄도 모르고, 손을 잡고 회롱도 하며 귀를 대고 밀어(密語)도 속삭였나이다. 상공의 의심을 불러일으켰으니, 천 첩의 죄는 실로 만 번 죽어 마땅하옵니다.”<sup>45)</sup>

양소유가 사건에 직접 마주한다. 계섬월은 적백란의 진실도 변명도 하지 않는다. 자신이 천한 여자임을 밝히면서, 적백란이란 남자와 내외하지 않음을 말한다. 사람들이 천한 사람을 천히 여기고,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데 치우치게(之其所賤惡而辟焉)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양소유를 시험한다. 양소유는 계섬월에게 ‘나는 그대의 마음을 의심하지 않으니, 그대는 조금도 꺼려하지 마라’하고 그녀를 다독인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적생은 소년이라 필연 나를 보고 꺼려할 것이니, 내가 마땅히 그를 불러 위로’할 것을 거듭 생각한다.<sup>46)</sup> 하지만 그녀(적백란)는 이미 사라지고 없다.

양소유가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 적백란이 사라진 것을 보고 초장왕의 고사를 떠올리며 후회한다.

한림은 크게 후회하여 이르기를,

“옛적에 초장왕(楚莊王)은 갓끈을 끊어, 그 모든 신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였는데, 나는 곧 모호한 일을 살피고자 하다가, 이로 인해 재주 있고 아름다운 선비를 잃었으니, 이제 비록 스스로 책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곧 종자들을 시켜서 성 안팎을 두루 찾아보게 하였다.<sup>47)</sup>

45) 정규복(1988), 위의 책, 211쪽. 桂娘曾與狄生相親乎? 蟾月曰“妾與狄生雖無宿昔之雅 而與其妹子 有舊誼故 問其安否矣. 妾本娼樓賤女, 自然濡染於耳目, 不知遠嫌於男子, 執手娛戲 附耳密語, 以招相公之疑, 賤妾之罪 實合萬殞.”

46) 정규복(1988), 위의 책, 211쪽. 商量曰 狄生少年也, 必以見我爲嫌, 我當召而慰之.

47) 정규복(1988), 위의 책, 212쪽. 翰林大悔曰 昔楚莊王絕纓 以安其群臣矣, 我則欲察曖昧之事, 仍失才美之士, 今雖自責何可及也? 即使從者遍訪於城之內外. 是

양소유는 자신이 살핌(察)이 부족함으로 아름다운 선비를 잃은 것을 후회하며 반성한다. 이 장면에서의 양소유는 수신(修身) 이전의 단계를 완성한 인물이다. 하지만 자신의 의도한 바가 있지만 자세히 살피지 않는다면 바로 치우침에 빠져 몸을 닦지 못함이 됨을 보여준다(常人之情惟其所向而不加審焉, 則必陷於一偏而身不脩矣).<sup>48)</sup>

수신은 실천의 첫 단계이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배우기를 좋아하고 힘써 실천하며 부끄러움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세 가지를 알면 자신을 수양하는 법을 알게 되고, 다음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법을 알게 되며, 천하를 다스리는 법을 알게 되는 것이다.’<sup>49)</sup> 적경홍은 이런 지·인·용(智仁勇)을 갖춘 인물을 상징한다.

적경홍이 계섬월을 대신하여 양소유와 하룻밤을 보내고 모든 사실이 알려진다. 그리고 적백란은 적경홍이란 새로운 단계의 완성이 시작된다.

양소유의 6번째 인연인 이소화는 황제의 누이이다. 양소유의 꿈이 아무리 크다고 하지만 황제의 누이와 신분의 차이가 나기 마련이다. 그런데 양소유가 결혼이라는 사건으로 이소화와 엮힌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양소유가 결혼은 거부하는 데 있다. 그것도 신분의 차이가 아니라 정혼자가 있다는 이유로 말이다.

제가의 핵심은 결혼 즉, 장가 또는 시집감(歸)<sup>50)</sup>이다. 장가 또는 시집을

夜與蟾月 話舊論心, 對酒取樂至夜半, 滅燭而寢矣.

48) 주희, 앞의 책 전 8장, 112~117쪽.

49) 주희, 위의 책 20장, 173~176쪽 참조.子曰 好學近乎知, 力行近乎仁, 知恥近乎勇, 知斯三者, 則知所以脩身, 知所以脩身, 則知所以治人, 知所以治人, 則知所以治天下國家矣.

50) 유교의 대표적인 경전인 『中庸』(2章: 君子之道 造端乎夫婦 及其至也 察乎天地) 과 『周易』(「咸卦」: 天地萬物之本, 夫婦人倫之始)에서 부부 중요성을 서술한다. 유가의 최선의 인간상인 군자가 행하는 도의 실마리를 부부에서 시작된다고 한다. 부부의 도리가 바로 서야 하고 그것이 지극한 곳에 이르러야만 천지 만물의 살필 수 있다는 말이다. 그 부부의 시작이 바로 ‘시집감’이다. 모든 사회 구성이 가장 기본



감으로써 집안이 완전한 가정이 되고 새롭게 백성을 낳고 낳아 천하에 하늘의 도와 땅의 도를 다하게 한다(乾道成男, 坤道成女, 二氣交感, 化生萬物. 萬物生生, 而變化無窮焉).<sup>51)</sup> 결혼의 가장 큰 문제는 새로운 사람이 자신의 가족 집단에 들어오면서 발생하는 갈등이다. 그 갈등은 가족에 화목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시집(결혼)은 단순히 남녀 간의 문제가 아니라 가문의 문제이며 더 나아가 나라의 일로 확대되어 질 수 있다.

이소화는 양소유가 해결할 수 있는 갈등의 종류가 아니다. 그러므로 양소유에게는 가장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정부인인 정경패가 있는 상황에서 황제의 누이인 공주가 시집을 온다면 이제까지의 집안의 질서(禮)가 깨질 것은 분명하다.

이 부분은 『구운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래서 다른 인물들과 비교해도 많은 분량을 차지하며 사건이 많이 얽히고설킨다. 양소유는 이전에 큰 공이 있음에도 감옥에 갇히고, 전쟁이라는 사건이 그 사이에 끼어들고, 다른 여인들의 문제가 발생한다.

상서가 깜짝 놀라며 아뢰기를,

“황상의 은혜가 이 정도까지 이르니 신은 머리를 들 수 없나이다. 복이 지나치면 재앙이 생긴다 함은 말할 나위 없는 것이옵니다. 신은 이미 정사도의 딸과 약혼하여 예물까지 받은 지 여러 해가 지났사오니, 대왕께서는 이 뜻을 황상께 아뢰어 주시기를 엿드려 바라나이다.”<sup>52)</sup>

---

적인 요소로서 ‘부부’가 작용한 것이다. 이러한 유가적 사상에서 본다면 부부의 연을 맺지 못하고 과부와 홀아비로 지내거나 이성을 마감하는 것은 올바른 인간상이 되지 못하거나 더 나아가 벌을 짓는 행위로 비취질 수 있다. 그래서 부부를 완성하지 못한다면 유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불완전한 삶이 되는 것이다.

51) 이황, 이광호 옮김(2001), 앞의 책, 36쪽.

52) 정규복(1988), 위의 책, 216쪽. 尙書大駭曰 皇恩至此 臣首至地, 過福之災 有不暇論, 而臣與鄭司徒女子, 約婚納聘已經歲矣. 伏望大王以此意 奏達於皇上. 王曰 吾當歸奏於天階而惜乎! 皇上愛才之意已歸虛矣. 尙書曰 此關係人倫之大事 不

...

황상이 그 상소를 보시고 태후에게 다시 아뢰시니, 태후가 크게 노하여 양소유를 옥에 가두라 하고, 조정의 대신들도 일시에 함께 간하였다. 황상이 이르시기를,

“짐이 그의 죄와 벌이 심히 과한 줄 알고, 태후 낭랑께서 그토록 진노하시지만 구해 보도록 하겠소.”<sup>53)</sup>

정경패와 인륜의 정리(情理)를 따르고자 하는 양소유는 이소화의 결혼을 거절하는 상소를 올리게 되고 결국 황태후의 노여움을 사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다. 양소유의 최대의 난관이자 최고의 갈등이다. 일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인륜의 최대의 문제인 결혼과 갈등을 빚어내는 것이다. 혼인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집안의 문제이고, 그 과정에 신뢰를 기반으로 한 약속이 있다. 이미 양소유는 납빙(納聘)을 하였기 때문에 혼인이 된 것을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납빙을 하였지만 부모를 모시고 와서 성친(成親)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으로 혼인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황제가 얼굴을 대하고 타이른다면 신하된 자의 도리로 본다면 당연히 황제의 명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소유는 상소를 올려 거부한다. 태후가 진노한 것도 일견 타당하다 할 수 있다.

유학은 집안에 적용되는 덕목으로부터 시작하여 외부로 확대하는 사상이다. 그래서 가정의 효(孝)가 임금을 섬기는 충(忠)으로 확장된다. 모든 문제는 제일 먼저 가정의 일로 접근하는 것이다. 이소화는 이 점으로부터 갈등해결의 실마리로 삼는다.

“마마의 하교는 일의 형편에 크게 어긋나옵니다. 정녀가 혼인을 하고 아니하

可忽也。臣當請罪於闕下矣。

53) 정규복(1988), 위의 책, 221쪽. 上覽其疏 轉奏於太后, 太后大怒 下楊少游於獄, 朝廷大臣一時齊諫 上曰: “朕知其罪罰之太過 而太后娘娘方震怒 朕欲救.”

고는 본래 그 집안의 일이고, 어찌 조정에서 지휘할 바이겠나이까?”

...

“소녀가 일생에 투기가 무엇인 줄을 알지 못하오니, 정녀를 어찌 꺼리겠습니까? 다만 양상서께서 처음에 이미 약혼의 예물을 받았는데, 후에 첩으로 삼은 것은 예가 아니옵니다. ...

“소녀는 정씨 님 딸의 용모와 절행이, 비록 고금의 열녀라도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들었나이다. 진실로 이 말과 같다면 그녀와 함께 어깨를 견줄이 또한 소녀에게는 다행한 일이고, 소녀에게는 욕이 되지 않을 것이옵니다. ... 소녀가 아무쪼록 친히 정녀를 보아, 그 용모와 재덕이 과연 소녀보다 나오면, 소녀는 몸을 굽혀 우러러 섬기겠나이다. 만일 소견이 소문만 못하면 첩을 삼게 하거나 종을 삼게 하거나, 오직 마마의 뜻에 따르겠나이다.”<sup>54)</sup>

이소화는 아무리 황가(皇家)라 하더라도 조정의 일과 가정의 일은 구분해서 다루어야 한다고 말한다. 유교는 가정의 윤리를 확장하여 치국의 원리고 삼는데, 조정이 그 가정의 그 근간을 훼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정경패는 이미 양소유와 혼인하기로 되어 있는데 황실의 신분과 권위로 그녀를 첩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즉, 가정을 이루는 예(禮)가 있는데 황제의 누이라고 해서 그 예를 어길 수 없다. 집안을 교화하는 여성의 입장에서 부덕(婦德)이 출중하다면 신분을 낮추는 것이 마땅하고, 정경패의 부덕이 뛰어나 모범이 될 만하다면 황실의 권위를 버릴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복숭아꽃이 예쁘고 예쁘도다. 그 잎 무성하고 무성하도다. 이 아가씨 시집가

54) 정규복(1988), 위의 책, 230~231쪽. 娘娘之教 大違於事體. 鄭女之婚與不婚, 自是其家之事, 豈朝廷所可指揮者乎... 小女一生不識妬忌爲甚事也, 鄭女何可忌乎但楊尙書初旣納聘, 後以爲妾非禮也. 小女聞鄭氏女子容貌節行, 雖古今烈女不及也. 誠如是言與彼并肩, 亦小女之幸也 非小女之辱也. ... 小女欲因某條 親見鄭氏 其容貌才德 果出於小女之右, 則小女屈身仰事. 若所見不如所聞, 則爲妾爲僕 惟娘娘矣.

는 도다. 그 집안에 마땅하도다.” 그 집안에 마땅한 뒤에 나라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다<sup>55)</sup>.

제가의 핵심의 또 하나는 가르침(教)이다. 그 집안에서 효제자를 가르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없다. 즉, 집안의 가르침을 확장시켜 나라에 적용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군자는 집 밖을 나갈 필요가 없다. 집 안의 윤리가 국가의 윤리 곧, ‘효는 임금을 섬기는 방법이요, 제는 어른을 섬기는 방법이요, 자는 백성들을 부리는 방법’<sup>56)</sup>이 되는 것이다.

제가는 본격적인 다스림의 단계이다. 수신의 공부가 완성되어 백성들을 새롭게 하여 지선에 머무르게 하는 첫 단계이다.<sup>57)</sup> 나라는 가문들의 모임이다. 나라에는 많은 가문이 있고 그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존재한다. 이것이 수신이 사회적 확장을 통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방법이다. 제가는 한 가문의 제가에서 벗어나 서로서로 교화를 주고받으면서 나라의 근간을 만들고 유지시킨다. 그러므로 ‘그 집안을 가르칠 수 없다면 남을 가르칠 수 없는 것이다(其家不可教而能教人者, 無之)고 한 것이다. 이소화는 이런 점을 갖추었기 때문에 형제가 됴으로써(「宜兄宜弟」宜兄宜弟, 而后可以教國人<sup>58)</sup>) 정경패에 제일부인의 자리를 양보한다. 자신보다 덕이 있는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함으로써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 4) 심요연·백능파와 치국·평천하

치국·평천하의 단계 여인들은 ‘운명’이라는 매개를 통해 인연을 맺는다

55) 주희, 앞의 책 참조. 桃之夭夭, 其葉蓁蓁; 之子于歸, 宜其家人. 宜其家人, 而后可以教國人.

56) 주희, 위의 책, 117쪽 참조. 其家不可教而能教人者, 無之. 故君子不出家而成教於國: 孝者, 所以事君也; 弟者, 所以事長也; 慈者, 所以使衆也.

57) 이황, 이광호 옮김(2001), 앞의 책, 60쪽, 177쪽.

58) 주희, 앞의 책 전 9장, 127쪽.

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마치 8조목이 평천하라는 정해진 길을 수행하여 완성하는 운명 같은 일이라는 것을 비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심요연은 중국에서 만난 사람이 아니다. 토번이라는 외국에서 인연을 맺는다. 토번은 변방의 오랑캐의 나라이며 황제의 덕화가 미치지 못한 곳이다. 덕화가 미치지 못한 곳에 대한 정벌 전쟁은 피할 수 없다. 『구운몽』에서 자국 내 벌어진 난(亂)을 평정한 사건이 없지는 않았지만 전쟁을 벌이는 것은 ‘치국’과 ‘평천하’ 단계뿐이다.<sup>59)</sup>

치국은 마지막의 단계인 평천하를 위한 꼭 거쳐야 하므로, 더욱 삼가고 신중해야 하며, 가장 힘든 단계이지만 가장 중요하고, 역동적이어야 하며, 예측 불가능한 상황일 것이다. 이 대목은 『구운몽』에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인물인 자객이 등장하지만 도리어 승리의 책략을 제공하는, 그래서 평천하를 완성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인물이 등장한다.

스승이 또한 타이르시기를,

“네 전생의 연분이 대당국(大唐國)에 있고, 또한 그는 큰 귀인인데, 너는 외국에 있는지라 만날 도리가 없다. 내 너에게 검술을 가르친 것은, 너로 하여금 이 조그만 재주로 인해 귀인을 만나게 하려고 한 것이니, 네 후일에 마땅히 백만 군중에 들어가 전쟁터에서 좋은 인연을 이룰 것이다.”<sup>60)</sup>

8조목의 정해진 최종의 목표는 평천하이다. 그것은 격물에 접어드는 선비가 지향해야 하는 운명이다. 그리고 그 단계 하나라도 저버리는 순간 ‘유교적 이상향’은 수포로 돌아간다. 매 단계가 칼날의 위를 걷는 용기와 결단

59) 난(亂)이 일어난 사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진채봉과 헤어진 계기가 되는 난 2) 하북 세 절도사의 난 즉 적경홍을 만나는 계기가 되는 연나라의 난이다.

60) 정규복(1988), 앞의 책, 223쪽. 師曰 汝之前世之緣, 在於大唐國 而其人大大貴人也, 汝在外國 邂逅無便, 吾所以教汝劍術者, 欲使汝因此小技得逢貴人, 汝他日當入百萬軍中, 得成好緣於戎馬之間矣.

력이 필요하다.<sup>61)</sup> 그것은 선비에게 마치 운명과도 같은 것이다. 심요연은 양소유에게 이러한 운명, 그것도 죽음을 담보하는 전쟁터에서 자객으로 직접 대면해야 하는 운명을 상징한다.

상서는 그가 자객인 줄 알면서도, 조금도 안색을 변하지 아니하고, 존엄한 위력을 더욱 늠름히 하면서 천천히 묻기를,

“여자는 어떠한 사람이며, 밤에 군중에 들어오니 필연 깊은 연고가 있으렸다.”

여인이 답하기를,

“첩이 토번국 찬보(贊普)의 명을 받아, 상서의 머리를 얻고자 왔나이다.”

...

“그대가 이미 비수를 끼고 군영에 들어왔거늘, 도리어 나를 해치지 않음은 어떤 까닭인가?”

여인이 답하기를,

“첩의 본말을 스스로 이르고자 할진대, 아마도 이렇게 서서 잠깐 하는 말로는 이루 다 할 수 없나이다.”

상서가 자리를 내주며 묻기를,

“남자가 위험을 무릅쓰고, 소유를 찾아와 만남에 필연 좋은 뜻이 있으리라. 장차 무슨 가르침을 주시려하는고?”<sup>62)</sup>

양소유는 심요연이 여자 자객임을 알고 있다. 그런데 여성임에도 자객이 되어 군막에 숨어든 까닭이 있을 것이라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헤아린다. 즉, 모든 것을 심요연의 입장에서 헤아린다. 양소유는 ‘여인이 군막에 들어

61) 주희, 앞의 책 9장, 78쪽에서 단장취의(斷章取義)함.

62) 정규복(1988), 앞의 책, 223쪽. 尙書知其刺客 而神色不變, 威稜益冽徐問曰: “女子何人 夜入軍中 有甚意也.” 女子答曰: “妾承吐蕃國贊普之命, 欲取尙書首級而來矣.” … “君旣挾利刃入軍營, 反不害我何也?” 女子曰: “妾之本未雖欲自陳, 恐非立談之間所能盡也.” 尙書賜坐而問曰: “娘子之涉險冒危, 來見少游必有好奇也. 將何教之?”

수밖에 없는 연고'와 '기꺼이 자기의 목을 내어 놓은 일'과 '해치지 않은 까닭을 듣고자 함' 등 절대 절명의 순간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재어 보는(絜矩) 태도를 보인다.

『대학』에서 치국의 요체로 '혈구지도(絜矩之道)'를 강조한다. 혈구지도는 '사물의 네모난 곳을 재어본다'는 뜻으로 '군자는 반드시 마땅히 같은 바를 따라 사물을 헤아려, 저와 나 사이에 각각 분수에 따른 원함을 얻게하는 것이다.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객에게 치국의 핵심 요체인 '혈구지도'의 자세를 보인 것이다. 김만중은 양소유의 군자다움을 드러내는 방편으로 심요연을 등장 시켰고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장면을 연출한다. 그러자 심요연은 칼을 던지고 무릎을 꿇고 만다.

운명은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극적인 효과가 크다. 심요연이 자객이 되고 양소유가 대장군이 되어 만날 확률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만남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정해진 필연이란 것을 안다. 김만중은 운명이라는 거대한 명제 앞에서 전혀 관계없는 것들이 하나하나 맞물려 풀리는 상황을 연출한 것이다. 그 끝은 평천하임을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치국'과 '평천하'의 단계는 모두 전쟁이라는 사건이 설정되어 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든 단계임을 말한다. 둘 다 목숨을 담보해야만 얻을 수 있는 과정이다. 하지만 단지 용기와 힘만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것을 채보하는 능력과 자질이 필요한 단계이다.

하지만 이 자객 심요연은 양소유에게 갈등을 해결하고 입신양명의 최극점까지 이르게 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평천하의 선결 조건인 치국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가장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즉, 자객으로 들어온 심요연의 마음을 얻는 자는 가장 어려운 자들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이다. 그 마음을 얻으면 나라를 얻는다는 것이요, 그 마음을 얻지 못하면 끝내 평천하를 위한 나라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sup>63)</sup>

덕치의 최종 단계인 평천하는 유학의 덕화가 미물에까지 이르는 단계를 현상화한 것이다. 그래서 평천하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벗어나 넓은 세계로의 확장을 의미한다.<sup>64)</sup> 그리고 자신의 욕망의 실현을 넘어 타인(사물)에게까지 미치는 공효를 말하는 것이다.<sup>65)</sup>

『구운몽』의 8여인 중 백능파는 평천하의 완성을 보여주며 그녀 또한 심요연과 마찬가지로 양소유에 귀의하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다.<sup>66)</sup> 즉, 치국의 끝을 넘어 이제 하늘 아래 온 사망, 천하를 교화하여 평천하를 이루는 것을 보여 준다. 백능파는 인간의 한계를 넘고,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인친(仁親)이 배풀어지는 상징으로 해석된다.

63) 주희, 앞의 책 전 10장, 139~140쪽. 道得衆則得國, 失衆則失國(백성을 얻으면 나라를 얻고 백성을 잃으면 나라를 잃음을 말씀한 것이다.) 이때 ‘衆’을 단순히 ‘무리’, 혹은 ‘백성’이라고 해도 문맥에는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하지만 평천하가 유가의 최종 목적인데 그곳은 ‘至於至善’한 상태이다. 그렇다면 단순히 무리로서의 백성이 아니라 함께 ‘至善’에 머무르고자 하는 마음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동환, 『대학·중용』, 학민 문화사, 2000, 155쪽.

64) 천하라는 개념은 ‘하늘 아래 모든 것(天)’이라는 뜻을 사용하였다. 중국 역사에서 보면 천하는 중화와 4이(四夷)를 포함한 개념이다. 하지만 문학적 측면에서 국(國)이라는 단위를 넘어 다른 시공간까지 확대하여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김충렬은 ‘천하’ 개념은 고대 중국에서는 ‘우주’, ‘세계’라는 뜻으로 쓰였다. ‘천하’가 ‘天地’라는 말과 달리 쓸 때는 우주 생성적 의미 외에 특히 만유총회(萬有總會)의 장소를 범위(範圍)한다는 뜻과 변화 생성의 조화와 질서를 통섭하는 영역이라는 이른바 ‘통회(統會)’라는 의미가 강하다라 하였다. 중천김충열전집간행위원회음, 『중국철학사상의 상』, 중천김충열전집2, 원주시, 2018, 121쪽. 또, 김영환은 ‘천하’의 개념을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김영환, 「중화주의로서의 유학」, 『철학사상』 40,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11, 17~23쪽.

65) 주지는 『대학장구』 서에서 “국가의 백성을 교화하고 풍속을 빠르게 이루려는 뜻과 배우는 사람들의 몸을 닦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방법에 다소 도움이 될 것이다.(然於國家化民成俗之意, 學者修己治人之方, 則未必無小補云’라하였다)”이라 했다. 이때 화민성속은 평천하의 최대 목표인 것이다.

66) 정규복(1988), 앞의 책, 226쪽. 妾之始生也, 父王朝於上界, 逢張真人卜妾之命, 真人揲蓍曰, 此娘子前身即仙女也, 因謫罪降, 爲王之女而畢竟, 復得人形, 爲人間貴人之姬妾.



인친(仁親)은 가까운 것들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다. 즉, 유학의 원리인 친친지쇄(親親之殺)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유교에서 인을 실행할 때는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여 먼 데에 미친다(由近及遠)’고 말한다. “가까운 이를 가까이 하고서 사람을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고서 동물을 사랑한다”는 말이 이것이다.<sup>67)</sup> 평천하는 자신을 닮는 일에서부터 미물인 용녀에게까지 이른 다음에야 완성된다.

8조목의 마지막 단계인 평천하도 극적으로 이루어진다. 유학의 최대 목표인 평천하가 그냥 순조롭고, 평화롭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미지의 세계와의 가장 큰 전쟁을 통해서 획득한다. 김만중은 평천하를 이루는 마지막 과정을 남해용왕의 아들 오현(五賢)의 무도함이라는 특수한 상황, 즉 현실 세계를 넘는 시공간과 전쟁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그리고 있다. 남해용왕의 아들 오현(五賢)이 백능파를 흠모하여 구혼하지만 동정용왕은 장진인의 말을 핑계로 거부하니 남해 용왕이 겁박하게 된다. 이에 백능과는 만일 부모 슬하에 있으면 욕이 미칠 것을 염려하여 도망하여 백룡담에 거처한다. 양소유가 백룡담에 이르자 양소유를 만나 그 간의 사정과 회포를 풀며 인연을 맺는다.

그러자 오현이 백룡담에 쳐들어와 양소유와 결전하게 된다. 하지만 ‘평천하의 상징인 백능파의 운명’은 이미 정해졌듯이 양소유는 마지막 결전에서 승리를 거둔다.

“내가 천자의 명을 받아서 사방의 오랑캐를 정벌함에, 온갖 귀신도 감히 내 명을 거역하는 자가 없었도다. 너는 조그만 아이로 천자의 명을 알지 못하고 감히 대군을 항거하니, 이는 스스로 죽기를 재촉함이로다. 내게 한 개의 보검이 있는데, 이는 위징(魏徵) 승상이 경하(涇河)의 용왕을 벤 매우 잘 드는 칼이로다. 내 마땅히 네 머리를 베어서 장한 우리 군사들의 위엄을 떨칠 것이로되, 네

67) 『맹자』 「진심장」: 親親, 仁民, 愛物

아버가 남해를 진정하고 비의 은혜를 베풀어 만민에게 공이 있으므로 네 죄를 용서하노라. 지금부터 힘써 네 전의 나쁜 행실을 고쳐, 행여 다시는 남자에게 죄를 짓지 말지어다.”<sup>68)</sup>

양소유는 천자의 명을 받아 평천하를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물론 사물에 이르기까지 모두 교화를 시키는 존재이다. 그래서 ‘온갖 귀신’까지도 평천하의 운명을 거스르지 못한다. 그런데 남해용왕과 그 아들 오현은 이러한 천자의 교화에 반기를 드는 반역을 저지르게 된다. 달리 말하면 평천하의 상징인 백능과를 탐하여 ‘운명’을 거역하는 일을 저지른 것이다. 천자의 일에 반역하는 일은 죽음으로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그 간의 공을 생각하여 죄를 용서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여 다시 과거와 같은 잘못을 행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평천하는 물리적 힘에 복속이 아니라 덕에 감화되어 스스로 귀순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비록 전쟁을 통해 굴복을 시켰지만 ‘교화성속’이라는 유교적 목표를 이룩하려는 것이다.

태자는 겁이 나서 숨을 죽이고 몸을 추슬러 쥐 숨듯이 달아나 버렸다. … “동정 용왕이 양원수께서 남해 태자의 군사들을 격파하여, 공주의 위급함을 구하신 것을 아시고, 벽문(壁門) 앞에서 몸소 사례하고자 하시었사옵니다. 다만 소임이 영토를 지키는 일이라, 감히 자리를 마음대로 떠나실 수 없다 하시고, 비야호로 응벽전(凝碧殿)에 큰 잔치를 베풀어 원수를 받들고 맞이들이라 하셨습니다.”

… 미인 여섯 쌍은 부용의(芙蓉衣)를 입고 명월패(明月珮)를 차고 표연히

68) 정규복(1988), 앞의 책, 228쪽. 我奉行天命 征伐四夷, 百鬼千神莫不從命, 汝小兒不知天命 敢抗大軍, 是自促鱗鯢之誅也. 我有一介寶劍 卽魏徵丞相, 斬涇河龍王之利器也. 當斬汝頭 以壯軍威而, 汝父鎮定南海博施雨澤, 有功於萬民 是以赦之 自今勉悛舊惡, 幸勿得罪於娘子也.

한삼 소매를 떨치며, 마주 보고 춤을 추니 참으로 장관이었다.<sup>69)</sup>

평천하의 모습은 모든 것들이 마땅히 돌아가야 할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으로 구현된다. 불인한 자는 부끄러워 숨고 나라는 안정된다. 악인으로 상징되는 오현은 달아나고, 공주는 낭군을 얻고, 용궁으로 돌아가며 양소유는 전쟁 중인 군막을 벗어나지 않고, 동정용왕도 그 경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각자 자기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다. 또한 화려하지만 자기의 분수를 넘지 않고 절제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함으로써 평천하가 완성되는 것이다.

#### 4. 결론

소설은 허구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작가의 의도성이 짙다. 그래서 비유와 상징하고 있는 것들은 작가가 말하고 싶은 것들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구운몽』에서 나오는 팔(八)은 철저히 김만중이 의도한 것이다. 그가 철저히 유교적 환경에서 성장한 인물임을 고려하여 본다면 팔선녀의 ‘8’은 『대학』의 8조목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본 논문은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대학』의 팔조목과 팔선녀의 관계가 단지 우연이 아닌 김만중이 의도에 의한 것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래서 8이라는 숫자는 『대학』의 8조목 즉, 격물치지·성의정심·수신제가·치국평천하를 비유와 상징임을 밝히면서 『대학』의 8조목이 어떻게 문학적으로

69) 정규복(1988), 위의 책, 228~229쪽. 仍命曳出 太子屏息 戢身鼠竄而走... 洞庭龍王知楊元帥破南海之兵, 救公主之急, 極欲躬謝於壁門之前 而職業有守, 不敢擅離故, 方設大宴於凝碧殿, ... 美女六佾着芙蓉之衣, 振明月之珮 飄拂藕衫, 雙雙對舞 眞壯觀也.

표현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정리하면, ‘격물치지’로 상징되는 진채봉과 계섬월은 어린 선비가 과거를 통해 세상에 나아갈 때, 미지에 세상에 뛰어들는 과감함과 그에 따른 고난을 그리고, 지극한 앓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고 다음 사건을 연결하는 계기가 됨을 그린 것이며, ‘성의정심’으로 상징되는 정경패와 가춘운은 김만중이 그리는 이상적인 여인으로 스스로 속임이 없는 상태의 중요성을 말한 것이고, 감정의 상태를 바로 잡아 자신의 주인에게 한결 같은 신심을 다하는 상태의 중요성을 말한 것이며, ‘수신제가’로 상징되는 적경홍과 이소화는 처음 외부의 일에 임할 때 자신을 닦는 치우치지 않은 배움의 자세를 말한 것이며, 본격적인 다스림의 시작에서 가르침의 자세와 새로운 사람(시집오는 사람)에 대한 자세를 말한 것이며, ‘치국평천하’로 상징되는 심요연과 백능파는 유학의 운명인 평천하의 어려움이 전쟁과 같은데 거기에서도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세의 중요성을 유학의 덕화가 하늘 아래 온 사방 미물에 이르는 과정에서 어려움과 그 ‘화민성속’을 이루는 과정을 말함 것임을 알았다.

김만중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인물이니 만큼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과 연구가 될 수 있는 인물이다. 특히 가계와 생애를 고려해보면 유교는 물론 불교와 도교의 경학적 사상을 문학과 연결시키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 선상에서 대학의 8조목과 8선녀의 관계 연구는 이러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論語』

『맹자』

주희, 이동환 옮김, 『대학·중용』, 학민 문화사, 2000, 1~291쪽.

김동민, 「권근(權近)의 『대학장구(大學章句)』 전문(傳文) 체제에 대한 변론」,  
『儒敎思想文化研究』 77, 2019, 7~34쪽.

김만중, 심경호 옮김, 『서포만필 상, 하』, 문학동네, 2010, 1~662쪽.

김만중·송성욱 옮김, 『구운몽』, 민음사, 2003, 1~254쪽.

김병국, 최재남, 정운채 역, 『서포연보』, 서울대학교출판부, 1992, 1~352쪽.

김영환, 「중화주의로서의 유학」, 『철학사상』 40, 서울대학교철학사상연구소,  
2011, 3~33쪽.

서은숙, 『동양고전연구』, 「『大學』의 修身的 指導者論」, 34, 2009, 7~38쪽.

설성경, 『구운몽의 통시적 연구』, 새문사, 2007, 1~399쪽.

이동환 역해, 『대학』, 현암사, 2008, 1~207쪽.

이상돈, 「주자의 『대학』 絜矩之道論」, 『태동고전연구』 33, 2014, 83~106쪽.

이황, 이광호 옮김, 『성학십도』, 「대학도」, 홍익출판사, 2001, 1~207쪽.

정규복, 『구운몽원전 연구』, 일지사, 1988, 1~573쪽.

조승아, 「중국 숫자의 함의」,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1~  
132쪽.

중천김충열 간행위원회, 『중국철학사상의 상』, 중천김충열전집2, 원주시, 2018,  
1~558쪽.

황금중, 「주자의 공부론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1~348쪽.

ABSTRACT

The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8 Articles of  
'Daehak' and the 8 celestial women

Jung, Chi-gyun

This thesis seeks to examine how the characters in 'Gyunmong' such as the main character, who is both Sung-Jin and So-Yu and his counterpart, who are both the 8 celestial women and the 8 wives in the current life, form a relationship with the 8 articles, and how they may be compared and symbolized in terms of literature. In other words, the thesis aims to analyze how the 8 articles of 'Daehak' can be interpreted through their substitution as the 8 celestial women.

The author views that 'Gyunmong' symbolically illustrates the 8 articles of 'Daehak' through the chain of process of Yang, So-Yu and the 8 celestial women forging a relationship. Through this, the author seeks to examine how the study of Confucian classics and literature study were substituted through comparison and symbolism and had the role of a detailed report. and whether they can be interpreted abundantly.

Kim, Man-jung is a typical Confucian scholar who grew up in a Confucian family environment. In the East, literature and thought are complementary or integral relations rather than individual relationships. Since this is the case, this kind of idea could be expressed by whatever means in his novel 'Gyunmong'.

If we were to look from this sort of meaning, the 8 people are chosen and intended as the 8 people by Kim, Man-Jung as the 8 articles, and the 8 articles that he sought to express are projected onto the specific individual personality. This thesis sees that this is intentionally expressed as the symbols of the 8 articles of 'Daehak' and attempts to trace and analyze this theory.

Most likely, there must be a message for the Confucian scholar Kim,

Man-jung, who has been equipped with the knowledge of Confucian classics, to convey through 'Gunnmong' which is the work of literature that illustrated three religions, which are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In this way, by comparing the 8 celestial women of 'Gunnmong' with the 8 articles of 'Daehak', I hope to propose a new research direction about 'Gunnmong' and Kim, Man-jung, and the combining of Kim, Man-jung's literature and Confucian classics.

**Key Words** Kim, Man-jung, 'Gunnmong', Yang, So-Yu, 8 celestial women, Confucian classics, 'Daehak', 8 articles of 'Daehak'

논문투고일: 2023.12.27. 심사완료일: 2024.02.02. 게재확정일: 2024.02.07.
--